

## 통역 학습자의 원천텍스트 난이도 평가

최 문 선  
(이화여대)

### 1. 서론

입학시험이나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시험, 전과시험, 졸업시험, 자격 인증시험 등과 같은 중요한 통역 시험(high-stakes test)에 어떠한 특징을 가진 원천텍스트를 사용할 것인가. 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시험 결과가 응시자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보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합한 텍스트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이 바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이다. 시험용 텍스트는 평가도구로서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서 종적인 측면(동 시험의 이전 회차에 사용된 텍스트 대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횡적 측면(동 시점에 이루어지는 타 언어 조합의 통역 시험용 텍스트 대비)에서의 난이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Sawyer 2004: 159-169). 이에 더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과정 중에 사용되는 통역 ST의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경(2012: 139)은 “텍스트 난이도가 학습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으면 학습결과 부진,

학습 시간 동안의 좌절감과 부적응, 학습 흥미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역 수행의 어려움의 정도, 즉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크게 텍스트 내적 요인과 텍스트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내적 요인은 어휘, 문장 구조나 길이, 내용정보 등 원천텍스트와 관련된 요인이다. 텍스트 외적 요인은 발화속도나 억양과 같이 연사와 관련된 요인, 시각적 보조도구의 사용 여부나 음질 등 통역 상황의 변수, 통역사의 신체적, 심리적, 지적 상태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통역 교육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텍스트에 기인하는 난이도, 즉 원천텍스트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무 통역 현장에서는 원천텍스트의 내용이나 문장의 통사적 특징, 어휘 등과 같은 텍스트 내적 요인 외에도 연사의 발화속도나 어조, 발음, 시각적 자료의 사용 여부 등과 같은 텍스트 외적 변수가 통역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문선 2012). 이에 비하여 현재 통역대학원으로 대표되는 전문 통역교육기관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되는 통역 자료의 경우 진술한 바와 같은 텍스트 외적 요인은 대부분 고정된 상태에서 다양한 성격의 원천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주제가 어느 정도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지, 어려운 어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길이가 긴 복문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한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텍스트 외적인 조건은 고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검토하여 선정하는 이유는 통역 과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서 발화 속도나 특이한 발음, 어조 등과 같은 추가적인 난이도 요인에 대응하는 기술이나 전략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용 ST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적 요인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

ST 난이도에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를 통해 통역 수행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다시 말해 난이도가 높으면 통역 수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통역결과물의 품질도 저하될 것이고 반대로 난이도가 낮으면 통역이 잘 될 것이므로 통역결과물의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념적 기대는 통역 시험을 실시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곤 한다.

어떤 시험에서 극히 소수의 응시자만을 합격시키고자 할 때 난이도가 높은 ST를 출제하려 할 것이며, 난이도가 낮은 ST를 이용하여 통역 시험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응시자가 합격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ST의 난이도가 통역결과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난이도와 통역결과물 품질 간의 관계는 보다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통역 수업, 통역 평가 등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통역 수행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통역 원천텍스트는 대부분 교수자가 선정한다. 문제는 교수자가 원천텍스트를 선정하면서 수행하는 난이도 평가가 실제 그 텍스트를 통역할 대상(학생이나 응시자)이 느끼는 난이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질 수 있는냐이다. 물론 통역 실무 및 통역 교육의 전문가인 교수자의 직관적인 난이도 판단은 상당히 신뢰할만하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절차가 필요하다(Sun & Shreve 2014).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역 ST의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한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통역 교육 시 ST 난이도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학습자의 난이도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역 교육에 사용되는 ST의 텍스트 내적 요인이 난이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 하에 통역 원천텍스트 난이도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적 특징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역을 수행한 통역학습자 입장에서 판단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난이도를 높이는 데 관여한다고 여겨지는 텍스트 요소 중 어떠한 요소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어떠한 특징(textual features)을 측정하면 통역 수행자가 경험하게 될 난이도를 보다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통역 교육용 ST를 선정하기 위한 난이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자 개인이 수업용 ST를 선정하는 등 복수의 평가자(rater)를 동원할 수 없는 경우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ST 난이도 평가틀을 제시할 수 있고, ST 난이도 평가의 경험이 부족한 초보 교수자들에게 난이도 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평가자 간에 난이도와 관련된 이견이 나타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이도 측정의 방법을 수립할 때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텍스트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특징은 하나가 아닐 것이며 따라서 복수의 요인을 결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요인이 무엇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n & Shreve 2014: 122).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ST 난이도가 높으면 통역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통역 수행자가 느낀 난이도가 통역 품질에 반영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난이도가 통역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ST 난이도 평가는 통역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ST 난이도와 통역 품질 간의 관계가 미약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역 교육용 ST의 난이도를 대부분 ST 선정의 주체인 교수자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교수자의 난이도 평가가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역 교육자료 선정을 위한 교수자의 원천텍스트 난이도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최문선 2013)에서 교수자들이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평가한 결과를 학습자가 실제로 느낀 난이도와 비교하였다.

이상에서 제기한 본고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T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텍스트적 특징은 무엇인가?
2. ST 난이도가 통역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가?
3. ST 난이도에 대한 교수자 평가는 신뢰할 만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역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순차통역 실험을 비롯하여 ST 난이도 평가, 통역정확도 산출, ST의 텍스트적 특징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은 자료를 상호 대조, 비교하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sup>1)</sup> 본 연구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1)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최문선 2013)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행하였으나 해당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학습자의 순차통역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ST 난이도 평가와 관련된 학계의 관심과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 2.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평가

원천텍스트에 기인하는 난이도 요인을 비롯하여 그 외에 통번역사와 관련된 요인이나 통역의 경우 연사와 관련된 요인 등 통역이나 번역 과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요인은 통번역 연구의 초기부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Wilss 1982; Nord 1991/2005 등)에서 번역 과제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천텍스트의 구체적 특징을 몇 개의 범주로 묶어 체계적으로 분류한 바 있다. 통역과 관련하여서도 질(Gile 1995/2009)이 언급한 ‘문제유발항목(problem triggers)’이라든지 피히하커(Pöchhacker 2004)가 설명한 통역의 다양한 입력물 변수 역시 통역 과제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난이도 요인의 지평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원천텍스트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평가가 통역(혹은 번역) 교육, 인증,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쉰(Sun 2015)은 원천텍스트 난이도 평가의 출발점을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두 가지 질문으로 보았다. 실제로 난이도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이 ‘무엇’이나 ‘어떻게’를 다루고 있으며, 일부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지칭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원천텍스트 난이도 요인(최문선 2013)’, ‘통역 난이도 가중 요인(박세리 2015)’, ‘어려움을 야기하는 [텍스트 내의] 항목(Campbell 1999; Hale & Campbell 2002)’, ‘난이도 예측 지표 (Liu & Chiu 2009; Sun 2015; Sun & Shreve 2014)’,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물 변수(Kraviarová 2013)’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었다. 이와 같이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온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난이도 설명력

이 높은 요인을 먼저 선별해야 한다.

원천텍스트의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탐구한 연구의 관심대상은 통역이나 번역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천텍스트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박한성(Park 2008), 이미경(2012), 최문선(2013), 박세리(2015)의 연구가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박한성(2008)은 문학번역에서 장르에 따라 원문의 이독성이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과 ST와 TT의 이독성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번역 ST의 이독성을 측정하였다. 읽기에 걸린 시간(time-on-task), 이해도 측정 문제의 정답률, 어휘 문제 정답률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이독성을 측정하였는데, 번역의 단계 중 원문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 한정된 난이도만을 조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경(2012)은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자 학부 AB 번역 수업에서 사용된 한국어 ST의 어휘 지수와 문장 지수를 바탕으로 이독성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평가한 번역난이도 점수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양 수치의 순위 면에서 상당한 일치점이 보여 어휘 지수와 문장 지수로 원문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텍스트의 난이도를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독성 점수와 번역난이도 점수의 순위를 단순 비교하였다는 면에서 방법론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양 순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어 텍스트의 이독성 지수가 번역 난이도 예측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문선(2013)은 통역 교수자들에게 영한 순차통역 ST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게 한 후 이를 각 텍스트가 가진 특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의 난이도 평가는 원문의 평균 T-unit 길이, 이독성 점수, 타입 대 토큰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실제 통역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전 평가(pre-interpretation rating)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박세리(2015)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통역 ST의 난이도를 높이는 6개 요인을 선정한 후, 통역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설문이 이러한 난이도 요인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와 같이 ST 난이도 요인을 다루고는 있으나 난이도 평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통역 교육 자료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기준은

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해외 연구 중에서는 세튼(Setton 2005)이 독영 동시통역 ST의 지시성(referentiality)과 어순 차에 따른 통사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이라는 두 변인이 통역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원문 난이도가 통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리우와 치우(Liu & Chiu 2009)는 영중 순차통역 ST의 난이도를 평가함에 있어 상당히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ST 평가(사전 평가), 학습자의 통역 수행 전/후 ST 난이도 평가(사전/사후 평가), 통역 점수, 난이도 예측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텍스트 특징 분석을 모두 수행하여 상호 비교한 후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문장 길이와 정보 밀도(information density)가 통역 점수와 높은 관계를 보여 이 두 요인을 난이도 예측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원천텍스트 난이도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 중 가장 난이도 예측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이도 요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주어진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요인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떠한 난이도 요인을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ST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입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난이도의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렉시바(Alexieva 1999)는 동시통역 원문의 청취난이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동시통역 수행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 중 ST의 정보가 함축적으로 제시되는 정도를 난이도 결정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명제 중 함축적 명제의 비율을 청취난이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함축적 명제와 명시적 명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누

략되어 있어 공식의 실제적 적용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크라비아로바(Kraviarová 2013)는 통역 연구에 사용되는 텍스트의 난이도를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난이도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시통역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의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속도, 억양, 원문 복잡성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텍스트 난이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3개 텍스트는 각각의 난이도 기준 면에서 상, 중, 하의 순위가 완전히 혹은 거의 일치하여 각각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충되는 측정치가 없었으므로 평가가 용이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텍스트 속성이 상반될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쉰과 슈레브(Sun & Shreve 2014)의 연구는 지금까지 다른 연구의 일부로서 난이도를 고려하거나 혹은 난이도 연구에 필요한 일부 요소에만 관심을 기울인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매우 종합적인 관점에서 ST 난이도 평가에 접근하였다. 번역 ST의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난이도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텍스트의 특징 분석, ST 난이도에 대한 평가, 번역 정확도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번역 정확도는 난이도 점수와 무관하며, 따라서 번역 난이도를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번역 시간과 이독성 점수는 난이도와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난이도 예측력이 낮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제 난이도(번역 후 난이도 평가)와 가장 높은 관계를 보인 변인인 사전 난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난이도를 산출하는 공식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는 15개의 ST가 사용되었으며, 총 102명의 번역학습자가 참여하는 등 표본의 규모 면에서 이전 연구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통계적 검증 결과의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한 자리에서 번역 전, 후 난이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출된 공식을 원문이 단 한번 제시되는 점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는 통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원천텍스트 난이도 평가와 관련된 통역, 번역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해보았다. 어떠한 난이도 요인을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고려하여 궁극적인 난이도를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탐색과 시도가 이루어졌다. 원천



텍스트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문제는 통역 교육을 비롯하여 인증과 같은 중요한 시험, 또한 통역 연구에서의 텍스트 변인 통제 및 연구 상호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연구의 수가 아직 크게 부족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주어진 ST의 난이도를 효과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3. 연구 설계

통역 교육의 맥락에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말할 때 그 난이도 판단의 주체는 통역 수행자인 ‘학습자’이며, 학습자가 해당 텍스트를 통역하고 나서 느끼는 난이도가 ‘ST 난이도’가 된다. 이처럼 학습자가 느끼는 ST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직접 통역을 수행한 후 난이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단계로서 학습자의 순차통역 실험을 통해 통역 후 ST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체감한 난이도가 통역정확도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통역결과물의 정확도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체감한 난이도와 관계를 가지는 텍스트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원천텍스트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적 특징을 측정하였다.

#### 3.1 학습자 순차통역 및 난이도 평가

학습자가 체감한 난이도를 파악하고 실제 통역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학습자의 순차통역 수행 실험이 이루어졌다.<sup>2)</sup> 한영 통역 전공 대학원생 5명이 3개의 영어 ST를 한국어로 통역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는 최문선(2013)의 연구에서 통역 교수자들이 난이도를 평가한 ST 중 가장 뚜렷하게 난이도 격차가 나타나는 3개의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즉 통역 교수자들이 매우 어렵다고

2) 본 연구를 위한 학습자 통역 데이터는 영한 순차통역 교육에 사용되는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평가에 관한 연구(최문선 2013)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생 순차통역 실험에서 획득하였다.

평가한 텍스트(ST1),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평가한 텍스트(ST2), 매우 쉽다고 평가한 텍스트(ST3)이다. 연구 설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3.1.1 참여자 및 ST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영 통역을 전공하는 5명의 대학원생(참여자A~참여자E)이 본 연구를 위한 순차통역 실험에 참여하였다. 5명 모두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으며 2년간 전문 통역 교육을 받고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다. 모두 영어권 국가에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며 체류 기간은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6년이었다. 참여자 전원의 A언어는 한국어였으며, B언어인 영어 구사력은 국가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조사한 결과 공인 영어 시험을 치른 적이 없는 참여자E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만점 혹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실험에 사용할 ST는 최문선(2013)의 연구에서 통역 교수자들이 부여한 난이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텍스트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텍스트를 먼저 선택한 후, 중간 점수를 받은 나머지 텍스트들 중 하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ST의 주제, 분량, 통역 교수자들이 평가한 난이도 수준(최문선 2013: 176 참조)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원천텍스트(ST)

구분	주제	분량	교수자 평가 난이도*
ST1	중국 역사	359단어	7.4
ST2	지속가능성	350단어	6.2
ST3	해산물 양식	389단어	5.2
평균		366단어	6.3

\* 총 15명의 통역 교수자가 1(매우 쉬움)에서 10(매우 어려움)사이의 점수로 표시한 난이도 점수를 모은 후 평균을 산출하였음.

통역실험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통역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속도인 분당 100~120단어 수준으로 영어 원어민(남성)이 낭독하였고 이를 녹음 파일로 만들어 통역 실험에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얻어진 낭독물의 속도는 ST1은 분당 99단어, ST2는 분당 104단어, ST3은 분당 103단어로서 평균 분당 102단어의 속도로 낭독되었다.

### 3.1.2 실험 절차

연구자는 참여자와 일대일로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를 설명하였다. 피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참여자별로 통역하는 ST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실제 통역대학원의 순차통역 수행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자 각 ST의 제목, 연사와 시점, 주요 용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여 통역에 앞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텍스트를 한 번에 통역하기에는 긴 분량이므로 각 ST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참여자 별로 총 6회의 순차통역이 이루어졌다.

통역을 모두 마친 후 각 참여자에게 ST의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응답지를 배포하였다. 참여자는 본인의 통역 수행을 바탕으로 응답지 상에 스스로 느낀 통역 난이도 점수를 1에서 10 사이의 정수로 표시하였다. 매우 쉬운 경우에 1점, 매우 어려울 경우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교수자 대상의 선행연구(최문선 2013)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추후 분석을 위해 응답지를 수거하였으며, 통역 내용 일체에 대하여 녹음과 전사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 3.2 통역정확도 평가

학습자의 난이도 평가 결과가 실제 통역결과물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역결과물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통역 품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에서도 통역정확도를 선택한 것은 통역 수행에 원문텍스트의 난이도가 미치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Liu & Chiu 2009: 251). 뿐만 아니라 통역정확도는 특히 학습자의 통역 품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이기도 하다(원중화 2014).

통역정확도는 원문의 명제 중 정확하게 통역된 명제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3개의 ST 원문 내용 전체에 대한 명제분석<sup>3)</sup>을 실시하여 각

3) 명제분석은 텍스트 이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독자의 텍스트 이해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텍스트의 의미 내용을 표상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텍스트의 내용을 개별 명제 단위로 분해하였다. 명제분석은 통역 원천텍스트 난이도를 다룬 선행연구인 리우와 치우(2009)에서 원문 명제분석에 적용된 보베어와 키에라스(Bovair & Kieras 1985)의 방법을 따랐다.

다음으로 총 30개의 통역 녹음 파일을 전사하였다. 전사물을 참조하여 통역 결과물과 그에 해당하는 원문의 명제를 대조한 후, 각 명제의 정확성을 판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힐드(Hild 2011)가 자신의 연구에서 통역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구분을 적용하였다. 힐드는 통역결과물을 정확한 원문 대응(strict correspondence), 풀어 말하기(paraphrasing<sup>4)</sup>), 오역(error), 누락(omission)의 네 가지로 분류한 후, 이 중에서 원문 대응과 풀어 말하기는 성공적인 통역으로, 오역과 누락은 통역의 오류로 간주하였다(Hild 2011: 258). 본 연구에서도 통역 결과물을 원문과 명제 단위로 대조하여 원문 대응, 풀어 말하기, 오역, 누락 중 한 가지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원문 대응으로 분류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명제분석에 기반한 통역정확도 평가(예시)

단계	분석 결과물
1. 원문 확인	Today, nearly half of our seafood comes from farms.
2. 원문 명제 분석	원문의 명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5개의 명제로 분해됨. P1* (TIME P2 TODAY) P2 (COME SEAFOOD) P3 (FROM P2 FARM) P4 (POSSESS SEAFOOD WE) P5 (OF NEARLY-HALF P4)
3. 통역문 확인	우리가 소비하는 해산물의 절반 정도가 이러한 양식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4. 통역문과 원문 명제	우리가 소비하는: P1, P4 (원문 대응) 해산물: P2 (원문 대응) <sup>5)</sup>

를 개별 명제로 분해하여 문장 단위로 목록화한다(Bovair & Kieras 1985: 315).

4) 리우와 치우(2009: 251)의 연구에서도 명제 기반의 통역정확도를 산출할 때 반드시 등가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원 명제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통역으로 간주하였다.

5) 통역문의 각 항목이 원문 명제 단위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통역문의 특정 항목

대조	의 절반 정도가: P5 (원문 대응) 이러한 양식업을 통해서: P3 (원문 대응) 생산되고 있습니다: P1, P2 (원문 대응)
5. 분석 결과 판정	위의 통역은 원문에 포함된 5개 명제의 의미를 모두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5개 명제 모두에 대해 원문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명제(proposition) 번호

<표 2>의 2단계에서 보베어와 키에라스(1985)의 명제분석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원문의 각 문장별로 <표 2>에 기술한 단계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통역 실패 사례인 오역과 누락이 발생한 횟수를 계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원문 명제별로 통역 실패가 발생한 경우를 V자로 표시하였다.

<표 3> 통역 실패 사례 계수(예시)

원문 명제 단위	참여자				
	A	B	C	D	E
P1 (REQUIRE MAN LAND)					
P2 (TIME P1 PAST)					
P3 (MOD PAST DISTANT)		V			
P4 (MOD MAN HUNTER-GATHERING)	V		V	V	V
P5 (AMOUNT-OF LAND ABOUT-5,000-ACRE)			V		
P6 (IN-ORDER-TO P1 P7)					
P7 (SUPPORT \$ PERSON)				V	
P8 (NUMBER-OF PERSON ONE)				V	
P9 (IN P7 CLIMATE)				V	
P10 (MOD CLIMATE TEMPERATE)				V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 ST별 총 명제 수, 참여자별 총 통역 실패 사례 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참여자별 통역정확도를 평가하였다.

### 3.3 원문의 텍스트적 특징 측정

통역사가 체감한 원문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텍스트 내 지표를 찾기

에 상응하는 원문 명제를 찾아 표시하였다. 즉 통역문(‘우리가 소비하는’, ‘해산물’ 등)은 명제 단위로 분절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위하여 각 ST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텍스트의 난이도를 반영할 것을 추정되는 항목으로 이독성, 어휘다양도, 어휘난이도, 통사적 복잡도를 선정하였으며 각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FRES(Flesch Reading Ease Score), 어종 대 단어 비율인 TTR(type to token ratio), 고급 어휘의 비중, 텍스트별 평균 T-unit 길이<sup>6)</sup>를 산출하였다.<sup>7)</sup> 측정을 위해 각 항목을 자동 산출해 주는 툴(tool)들을 사용하였다.<sup>8)</sup> 원문 텍스트의 특징과 측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일차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선행연구(최문선 2013)를 참조하기 바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설명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원문 텍스트의 특징 분석항목

분석 항목	측정 지표	측정 요소	해석 방법	참고문헌
이독성	FRES	단어 길이, 문장 길이	낮을수록 어려움	Flesch(1948)
어휘 다양도	TTR	어종(type) 수, 어휘(token) 수	높을수록 어려움	McNamara & Graesser(2012)
어휘 난이도	고급어휘 비중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어휘의 비율	높을수록 어려움	Laufer & Nation(1995)
통사적 복잡도	평균 T-unit 길이	텍스트 샘플 내 T-unit의 평균 길이(단어 수)	길수록 어려움	유재임(2005) Gaies(1980)

- 6) 선행연구(최문선 2013)에서 텍스트의 통사적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세 가지 지표 중 평균 T-unit 길이만이 난이도 평가와 통계적, 실제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통사적 복잡도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 7)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최문선 2013) 결과 통역 ST의 난이도 평가와 관련성이 없게 나타났거나 텍스트 상호간 동질성을 보이는 속성을 제외하고 상기한 4개 지표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8) 각 분석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사용된 측정 도구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된 최문선(2013)을 참조.

## 4. 결과

### 4.1 원문의 텍스트적 특징

본 연구에 사용된 3개의 ST의 텍스트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텍스트 별로 이독성, 어휘다양도, 어휘난이도, 통사적 복잡도를 측정된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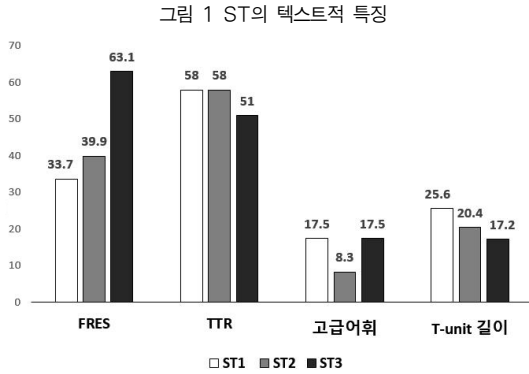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3개 ST는 이독성(FRES), 어휘 다양도(TTR), 어휘난이도(고급어휘 비중), 통사적 복잡도(평균 T-unit 길이)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독성 면에서는 ST3이 FRES 점수 63.1을 기록하여 가장 쉽게 읽히는 텍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다양도 면에서는 ST2의 TTR이 8.3%로 사용된 어휘가 가장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T1과 ST3은 TTR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휘난이도 면에서는 ST3이 고급어휘 포함 비율이 51%로써 가장 쉽게 나타나 이독성 측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평균 T-unit 길이는 ST1이 25.6단어, ST2가 20.4단어, ST3이 17.2단어의 순으로 측정되어 ST1의 T-unit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9) 최문선(2013)의 측정 결과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텍스트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여 제시하였다.

## 4.2 ST 난이도

참여자 5명이 통역을 수행한 후 각 텍스트에 부여한 난이도 점수(1점 = 매우 쉬움, 10점 = 매우 어려움)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통역난이도(10점 만점 기준)

구분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E	평균	표준편차
ST1	7	8	8	7	9	7.8	0.84
ST2	7	7	6	5	6	6.2	0.84
ST3	4	6	6	6	7	5.8	1.10

참여자가 부여한 난이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ST1이 가장 어렵고(7.8점), 그 다음이 ST2(6.2점), 그리고 ST3이 가장 쉬운(5.8점) 난이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려운 텍스트에서 쉬운 텍스트 순으로 표기하면 ST1 → ST2 → ST3의 순이다. 3개 텍스트 간의 난이도 점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세 ST간 난이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2) = 6.46, p < .05$ ).

이러한 차이가 3개의 텍스트를 상호비교했을 때 모든 텍스트 쌍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Tukey HSD)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난이도 평균을 기준으로 ST1이 ST2 및 ST3과 의미있는 수준( $p < .05$ )에서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참여자들의 난이도 점수는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sup>10)</sup> 난이도 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참여자가 ST1이 가장 어렵다는 데 동의하여 높은 일치율을 보인 점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 4.3 통역정확도

3.2.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거하여 각 ST별로 통역 실패 사례를 총 명제수에

10) 참여자의 난이도 평가 결과의 급내상관계수(ICC)는 0.558로 나타났다( $p < .05$ ).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가자간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0.7~0.8에 비해 낮으므로 평가자간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서 빼고 이를 다시 총 명제수로 나누어 통역 결과물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표 6> 참조).

<표 6> 통역정확도(%)\*

구분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E	평균	표준편차
ST1	81.6	90.1	85.8	82.3	84.4	<b>84.8</b>	3.4
ST2	85.8	90.0	87.2	80.1	85.8	<b>85.8</b>	3.6
ST3	90.2	96.5	83.2	70.5	76.9	<b>83.5</b>	10.3
평균	85.9	92.2	85.4	77.6	82.4	84.7	5.3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ST별 통역정확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ST2에 대한 정확도가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ST1의 정확도가 84.8%로 중간, 마지막으로 ST3이 83.5%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역정확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 $F(2,12)=0.156, p=.857$ ) 사후검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텍스트 쌍은 없었다. 다시 말해 ST 난이도가 통역정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기술한 3개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산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 5.1 ST 난이도와 텍스트적 특징의 관계

ST 난이도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는 텍스트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통역난이도가 텍스트의 속성 중 어떠한 측면과 관계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통역난이도 점수와 각 텍스트의 이독성, 어휘난이도, 어휘다양도, 통사적 복잡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A의 난이도 평가 결과가 고급어휘 비중과 완전히 일치하였다( $r=1.0$ ,  $p<.01$ ). 즉 참여자A는 고급어휘가 많이 포함된 텍스트일수록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ST 난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텍스트적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여자A의 난이도 평가 결과가 고급어휘 비중과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점은 이미경(2012), 쉰과 슈레브(2014)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운 어휘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미경(2012)의 연구에서 번역학과 학생들이 문장 지수보다 어휘 지수가 높은 텍스트에 대해 더 어려운 텍스트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쉰과 슈레브(2014)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번역 후 난이도 평가에서 배경지식 부족, 어려운 어휘, 긴 문장 중 어려운 어휘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통번역의 초보자라고 볼 수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 전문 통번역사에 비하여 어휘 중심의 국지적 프로세싱(local processing)을 통해 텍스트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 내려고 노력하는 반면 초보자들은 어휘 등과 같은 미시적인 언어 요소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Tirkkonen-Condit 2005: 406).

이와 같은 참여자A의 사례 외에는 ST 난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텍스트적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배제하고 상관관계수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T-unit 길이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 $r=.613\sim.991$ ). 상관관계의 해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표본의 수가 클수록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므로 상관관계가 실제적 유의성을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r$ 값의 크기를 보아야 한다(이경옥 2015). 본 연구에서도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표본의 수가 작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평균 T-unit 길이라는 텍스트 특성과 ST 난이도의 상관관계수가 작게는 .613에서 크게는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관계는 최문선(2013)의 연구에서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선행연구에서 교수자의 ST 난이도 평가 점수와 평균 T-unit 길이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98$ ,  $p<.01$ ). 이는 텍스트의 다양한 특징 중 평균 T-unit 길이가 학습자와 교수자 두 그룹의 통역 ST 난이도 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2 ST 난이도와 통역정확도의 관계

ST 난이도가 통역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T 난이도와 통역정확도의 평균과 순위를 비교하였다(<표 7> 참조).

<표 7> 통역난이도와 통역정확도 비교

구분	통역난이도		통역정확도	
	점수	순위	정확도(%)	순위
ST1	7.8	1	84.8	2
ST2	6.2	2	85.8	1
ST3	5.8	3	83.5	3

통념적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텍스트가 가장 통역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통역정확도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표7]의 순위에 따르면 오히려 가장 난이도가 낮은 텍스트였던 ST3의 통역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순위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역난이도와 통역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두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r=-.011, p=.97$ ). 이와 같이 순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ST 난이도는 통역정확도로 대표되는 통역의 품질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Liu & Chiu 2009; Sun & Shreve 201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명제분석을 통해 통역정확도를 산출하였고 선행연구의 경우 복수의 평가자가 총괄적 평가를 수행하여 매긴 점수를 기초로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므로 방법상의 차이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 개의 독립된 연구에서 통역난이도와 통역정확도의 관계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역정확도가 ST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통역 과정에서 통역사들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통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ST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모든 요소가 통역 상의 오류로 이어지지 않는 때문일 것이다. 혹은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통역정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통역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정과 반복 등 통역의 전달력 측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ST 난이도는 통역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5.3 통역학습자와 교수자 간 난이도 점수 비교

통역 교육 현장에서 통역용 ST를 선정할 때 교수자들이 텍스트를 읽거나 들어보고 그 난이도를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년간의 통역 실무 및 교육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텍스트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이도 평가가 실제 통역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지닌다. 이에 교수자들의 난이도 평가와 실제 통역한 후 난이도를 평가한 본 연구의 난이도 평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교수자의 난이도 평가의 신뢰성을 조사하였다.

〈표 8〉 통역 학습자와 교수자의 ST 난이도 평가 비교

	학습자	교수자
ST1	7.8	7.4
ST2	6.2	6.2
ST3	5.8	5.2

<표 8>과 같이 본 연구에서 실제 통역을 수행한 후 난이도를 평가한 통역 학습자의 난이도 점수 평균과 최문선(2013)의 연구에서 교수자들이 부여한 난이도 점수 평균이 상당히 근접하게 나타났다. 통역학습자가 매긴 난이도 점수는 교수자 그룹이 동일 ST에 대해 부여한 난이도 점수와 거의 같고 순위는 정확히 일치하였다. 다시 말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통역을 수행한 학습자들과 텍스트를 읽고 평가한 교수자들의 난이도 평가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통역 교수자 집단의 텍스트 난이도 판단(전문가/교수자 사전 평가)이 실제 학생들이 통역을 하고 나서 느낀 난이도(학습자 사후 평가)에 대한 예측력을 가진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된 교수자 집단은 일상적으로 수업 준비를 위해, 혹은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ST를 선정했던 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통역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년 간 통역 실무를 수행하고 통역을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통역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일선의 통역사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통역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경험을 거친 교수자일 경우 이들의 난이도 판단은 상당한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의 결과는 교수자들의 난이도 평가도 통역 결과물의 품질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수자들의 난이도 평가 점수가 학습자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앞서 4.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통역 학습자들이 평가한 난이도와 통역정확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가 ST 난이도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학생들의 통역정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6. 결론

통역 교육의 맥락에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학술적, 실용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통역 과제의 수행자인 학습자가 느끼는 원천텍스트의 난이도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산출한 후 이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원천텍스트 난이도 평가 결과를 각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텍스트적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상관계수의 크기 면에서 볼 때 평균 T-unit 길이가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교수자 대상의 선행연구(최문선 2013)와도 일치하였다. 한편 ST 난이도는 통역정확도로 대표되는 통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ST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통역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통역을 수행한 통역학습자들의 난이도 평가 결과를 선행연구(최문선 2013)에서 텍스트를 읽고 평가한 교수자들의 난이도 평가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통역 교육의 전문가인 교수자의 사전 난이도 평가는 실제 학생들이 통역을 하고 나서 느낀 난이도, 즉 학습자의 사후 난이도 평가에 대한 예측력을 가진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대한 엄격한 분석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통역에서의 원천텍스트 난이도를 고찰한 선행연구(Liu & Chiu 2009; Kraviarová 2013)와 마찬가지로 단 3개의 텍스트만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교수자의 난이도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난이도 차이가 예상되는 텍스트들을 선정하였으나 텍스트적 특성 면에서는 일부 동질적인 면도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결과를 오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사전 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떠한 특성을 가진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엄선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작은 수의 표본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더라도 서로 다른 연구간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귀중한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이차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행연구자들은 표본의 크기가 작았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면서 향후 표본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보다 신뢰도 높고 유의한 결과 도출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Liu & Chiu 2009; Sun & Shreve 2014). 따라서 텍스트 특성을 명확히 통제된 유사 연구가 축적된다면 통역 원천텍스트 난이도를 보다 효과적,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통역 교육을 위한 텍스트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박세리 (2015) 「통역 교육 텍스트로서 한국어 연설문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 어휘적 측면에서의 통역 난이도 가중 요인 분석」, 『통번역학연구』 19(1): 82-103.
- 원종화 (2014) 「영한 통역 정확도 평가를 위한 아이디어 단위 연구」, 『번역학연구』 15(2): 123-148.
- 유재임 (2005) 「T-unit 분석방법과 문장합성연습」, 『신영어영문학』 13: 259-287.
- 이경옥 (2015) 『SPSS 명령문을 활용한 유아교육연구 분석』, 서울: 학지사.
- 이미경 (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

- 역학연구』 13(2): 139-164.
- 최문선 (2012)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47-276.
- 최문선 (2013) 『영한 순차통역 교육을 위한 원천텍스트 난이도 연구: 텍스트적 요인을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Alexieva, Bistra (1999) 'Understanding the Source Language Text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9: 45-59.
- Bovair, Susan and Kieras, David E. (1985) 'A Guide to Propositional Analysis for Research on Technical Prose', in Bruce K. Britton and John Benjamin Black (eds) *Understanding Expository Text: A Theoretical and Practical Handbook for Analyzing Explanatory Tex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17-362.
- Campbell, Stuart (1999) 'A Cognitive Approach to Source Text Difficulty in Translation', *Target* 11(1): 33-63.
- Flesch, Rudolf (1948) 'A New Readability Yardsti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2(3): 221-223.
- Gaies, Stephen J. (1980) 'T-unit Analysi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Applications, Problems and Limitations', *Tesol Quarterly* 14(1): 53-60.
- Gile, Daniel (1995/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le, Sandra and Campbell, Stuart (2002) 'The Interaction Between Text Difficulty and Translation Accuracy', *Babel* 48(1): 14-33.
- Hild, Adelina (2011) 'Effects of Linguistic Complexity on Expert Processing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Cecilia Alvstad, Adelina Hild and Elisabet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Integrative Approache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49-267.
- Kraviarová, Zuzana (2013) 'Assessing Source Speech Difficulty for Research Purposes', *Forum* 11(1): 51-75.
- Laufer, B. & Nation, P. (1995) 'Vocabulary Size and Use: Lexical Richness in

- L2 Written Production’, *Applied Linguistics* 16: 307-322.
- Liu, Minhua and Chiu, Yu-Hsien (2009) ‘Assessing Source Material Difficulty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Quantifiable Measures and Holistic Judgment’, *Interpreting* 11(2): 244-266.
- McNamara, Danielle S. and Graesser, Arthur C. (2012) ‘Coh-Metrix: an Automated Tool for Theoretical and Appli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hilip M. McCarthy and Chutima Boonthum-Denecke (eds) *Appli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dentification,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188-205.
- Nord, Christiane (1991/2005)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New York: Rodopi.
- Park, Han-sung (2008) ‘Readability and Its Implications on Translation: An Empirical Study Into Genre Fiction Versus Literacy Fiction’, *Journal of the Interpretation & Translation Institute* 12(1): 15-35.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Setton, Robin (2005) ‘Pointing to Contexts: A Relevance-theoretic Approach to Assessing Quality and Difficulty in Interpreting’, in Helle V. Dam, Jan Engberg and Heidrun Gerzymisch-Arbogast (eds) *Knowledge Systems and Translation*, Berlin/New York: M. de Gruyter, 275-312.
- Sawyer, David B. (2004) *Fundamental Aspects of Interpreter Education: Curriculum and Assessment*.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Sun, Sanjun (2015) ‘Measuring Translation Difficulty: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6(1): 29-54.
- Sun, Sanjun and Shreve, Gregory M. (2014) ‘Measuring Translation Difficulty: An Empirical Study’, *Target* 26(1): 98-127.
- Tirkkonen-Condit, Sonja (2005) ‘The Monitor Model Revisited: Evidence from Process Research’, *Meta* 50(2): 405-414.
- Wilss, Wolfram (1982) *The Science of Translation: Problems and Methods*. Tübingen: Narr.



[Abstract]

### **Assessing Source Text Difficulty from Student Interpreters' Perspective**

Choi, Moonsun

(Ewha Womans University)

Assessing source text difficulty is instrumental in selecting appropriate source texts for interpreting classes and tests, not to mention for interpreting research. Although there have been sporadic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source text-based factors influencing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asks, they have generally failed to yield consistent and reliable results with a few exceptions.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is line of research, given its need and importance, requires further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indicators of source text difficulty in the context of interpreter training, specifically focusing on English texts used in English-to-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Five second-year interpreting students from a prestigious MA interpreting program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performed consecutive interpreting of three English texts and rated their difficulty. The interpreting products were rated in terms of their accuracy. The difficulty ratings by the student participants were then compared with the textual features of the given STs, the interpreting accuracy scores, and the difficulty ratings by interpreting teachers generated in the author's previous research. The results showed that 1) source text difficulty assessed by student interpreters did not reveal an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textual features examined, while the average T-unit length was deemed to be a potential indicator; 2) source text difficulty assessed by student interpreter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nterpreting accuracy; and 3) source text difficulty assessment by students were in line with that of teachers,

which implies that judgment of teachers, at least those who are highly experienced in both teaching and practicing interpreting, could be an effective predictor of source text difficulty.

▶ Key Words: interpreter training, assessment, source text, difficulty, textual features

최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겸임교수

choimoonsun@ewha.ac.kr

관심분야: 통역교육, 통역평가, 통역과정, 통역전략, 텍스트분석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